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수사일보

정치일보

제 724 호 대표전화 (062) 373-6448

(음력 3월 1일) 2024년 4월 9일 화요일

GS건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성황리 분양 중

GS건설이 지난 5일 견본주택 문을 연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가 성황리에 분양 중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전용 59~109㎡ 총 3,214가구로 구성되는 광주 북구 최대 규모 단지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GS건설이 지난 5일 견본주택 문을 연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가 성황리에 분양 중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전용 59~109㎡ 총 3,214가구로 구성되는 광주 북구 최대 규모 단지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일반분양물량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313가구 △59㎡B 457가구 △75㎡A 210가구 △75㎡B 40가구 △75㎡C 10가구 △84㎡A 90가구 △84㎡B 260가구 △84㎡C 224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단지 가까이에 호남고속도로로 직결되는 서광주IC를 비롯해 국도1호선(북문대로) 등과 인접해 광역 이동이 용이하며, 제2순환로, 하서로, 서강로 등을 통한 광주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또한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으며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단지와 인접한 운암도서관을 비롯해 운암동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단지 전면으로 이미 활성화된 근린 상권이 조성돼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암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동측으로는 광주 북구를 대표하는 중외공원이, 서측으로는 운암산과 영산강이, 북측으로는 매곡산, 운암제 등 자연환경이 대거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 특히, 중외공원 내 아시아예술정원이 조성 예정(2024년 준공 예정)으로, 광주 예술의 전당, 광주시립미술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과 더불어 광주 문화벨트를 형성, 각종 문화예술시설을 가까이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인근으로 광주첨단2지구, 본촌일반산업단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산업단지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입주민 편의시설 또한 주목된다. 먼저, 단지 전체 동 기단부 4개층을 세라믹 타일로 마감하고, 단지 일부에는 랜드마크형 옥상 조형물과 측벽 디자인이 조명형으로 특화 적용되며, 단지의 상징이 될 대형 게이트와 열주가 설치될 예정이다. 세대 내에는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실 및 침실 등에 조망형 유리 난간을 적용한다.

우수한 조경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약 5.2만㎡ 면적의 조경에는 어린이놀이터, 수변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에는 전 타석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피트니스센터, GX룸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다채로운 시설이 계획돼 있으며, 각 동 지하층에는 부피가 큰 짐이나 계절용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세대 전용 창고(세대당 1개소)가 제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단지 내 북카페에는 교보문고에서 큐레이션한 인기도서 및 스테디셀러가 채워질 예정이며, 입주민이 직접 커피를 추출하고 향미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픈커피스테이션(OCS)을 조성하는 등 단지 내에서 한 차원 진화된 주거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청약문턱도 낮다. 광주광역시 및 전남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광주광역시 250만원, 전남 2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모든 주택형(59㎡, 75㎡, 84㎡)에 청약 가능하다. 또한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당첨제한도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4월 15일(월) 특별공급, 16일(화) 1순위, 17일(수)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단지 4월 23일(화) 3단지 4월 24일(수) 1단지 4월 25일(목)이고, 각 단지별로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해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정당계약은 5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3일간 진행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50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14일부터 본격 운영

통번역·노무상담·한국어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14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난 1월 공모 선정된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과 연계해 매년 국비 2억원과 지방비 3억원을 투입해 외국인주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특히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인 광산구 하남산단 인근에 있는 구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해 ▲통·번역 ▲체류·노무상담 ▲한국어교육 ▲국가별커뮤니티 지원 등 외국인주민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과 협업해 기관·단체별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그쳤던 것을 넘어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국적 동포 등 외국인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오는 2026년까지 맡는다. 지난 1999년 설립된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외국인주민지원사업, 내·외국인 문화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투입해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류자격별 맞춤형 지원, 내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돕겠다"며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외국인주민정책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특광역시 최초로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하고, 지치체 차원의 외국인주민정책 중장기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광주시는 민선8기 외국인주민정책의 핵심사업인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명실상부 '포용도시 광주'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 /이유빈 기자

국회의원선거 4월 10일 휴간